

신비

노 윤 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 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우연한 기회에 보았다거나 혹은 천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환시, 환청 혹은 상흔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신비주의자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생하게 느껴본 것이 없다. 나는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내가 그런 ‘신적 의식’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음미해 본다면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신비감을 느껴보지 않은 경우는 없을 듯하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빼어난 산천을 보고 찬탄을 아끼지 않은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금강산의 절경을 두고 우리나라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이라는 시가 전해지기도 했다.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기암절벽은 김홍도와 정선의 화폭에 담겨 산수화로써 진경문화(眞景文化)의 꽃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가사문학가로 평가되고 있는 정철의 『관동별곡』에서는 폭포를 묘사하되 “들을 때는 우레 같은데 직접 보니 흰 눈이구나”라는 절묘한 표현을 볼 수 있다.

대자연의 신비는 세계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나이아가라, 이파수, 빅토리아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있고, 킬리만자로, 매터혼이 인간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들이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 싸움에서도 종의 번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신비감이 저절로 솟아난다.

미국의 엘로스톤 국립공원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중국 대륙을

석권한 모택동이 생전에 스노(Edgar Snow, 1905~1972)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이 둘인데 하나는 대만을 해방시키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옐로스톤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술회한 것을 보면 옐로스톤의 신비경을 짐작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 내재된 신비

동정녀에서 태어난 예수의 탄생과 사후 그의 부활은 종교적 신비의 극치를 이룬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오직 쪽박 하나만을 들고 득도의 길에 오른 스님이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을 보고는 갖고 있던 쪽박을 버렸다. 이는 무소유를 향한 스님들의 고행을 상징하는 이야기인데 불교의 가르침이 무소유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空手來空手去) 실존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전통적으로 소유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여긴다. 기독교는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소유가 인간을 종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원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갖고자 하지 않는 것은 신비로운 가난의 조건을 의미한다.

심리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1976년에 발표된 그의 저서인 『소유냐 존재냐』(To have or to be)에서 자본주의와 당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배하고 있는 소유욕을 존재에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산업 사회에서 획득하는 것, 소유하고 이윤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성스러운 권리임에 틀림없다. 프롬도 인간이 소유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다.

문제는 사용되거나 기능적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사용 가치가 없고 이기적인 사회적 위상에만 치중된 소유물에 대해 분명한 구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발전된 자본주의가 인간성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용 가치로부터 소유의 문화로 전환된 호모사피엔스의 삶은 소유가 기쁨이 아닌 짐이며 소유자는 주인이 아니라 재산의 노예로 전락되었다는 비극이 전

대부분의 종교가 전통적으로 소유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여긴다.

기독교는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소유가 인간을 종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원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갖고자 하지 않는 것은 신비로운 가난의 조건을 의미한다.

원자력의 신비는 핵연료의 연쇄 반응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화석 연료는 그 주성분인 탄소 원자 1개가 연소되면 4.3 eV의 에너지가 발생되지만 핵연료인 우라늄은 원자 1개의 핵분열로 2억 eV의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원자력의 신비를 살려 심각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해야 한다.

원자력의 최종 목표는 핵융합로의 상용화이지만 이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중간 단계로 열효율이 높은 과열 증기 발생 원자로와 수소 생산을 겸한 고온원자로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도 원자력이 갖는 신비 때문이다.

통적인 신비주의가 경고하는 메시지이다.

정치 사상 분야의 신비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란 권력과 겁내기 사이의 강압적 결합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비폭력 저항의 형태는 신비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간디는 인도인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또한 사상가로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살았다. 경제적 독립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파악한 그는 손수 물레를 돌렸고 유명한 '소금 행진'을 이끌기도 했다.

1948년 불가촉 천민과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 노력하는 간디를 용서할 수 없다는 광신적 힌두주의자에 의해 저격될 때까지 간디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샤타그라하」 사상을 발전시켰다. '영혼의 힘, 순수하고 단순한 힘'의 뜻을 함축한 샤타그라하는 하나의 이론이나 기술이 아닌 삶의 양식이다. 간디는 또한 「아힘사」(비폭력) 운동을 통해 사회와 정부의 회개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발전시켰는데 그 방법은 오늘날 비폭력 저항 운동의 토대가 되고 있다.

원자력의 신비

원자력의 신비는 핵연료의 연쇄 반응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화석 연료는 그 주성분인 탄소 원자 1개가 연소되면 4.3 eV의 에너지가 발생되지만 핵연료인 우라늄은 원자 1개의 핵분열로 2억 eV의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된다.

100만 kw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200만 톤의 석탄이 필요한 반면에 같은 용량의 원자력발전소는 연간 27톤이면 충분한 이유는 우라늄의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탄 야적장이 필요 없는 원자력은 원자로 안에 내장된 우라늄의 핵분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 능력만으로도 연료의 추가 공급 없이 1~2년간 계속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자력의 신비를 살려 심각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해야 한다. 원자력의 최종 목표는 핵융합로의 상용화이지만 이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중간 단계로 열효율이 높은 과열 증기 발생 원자로와 수소 생산을 겸한 고온원자로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도 원자력이 갖는 신비 때문이다.

